

2004. 9. 8(水)

第27回 韓經研 포럼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UM

- 주 제 : 정부와 기업의 새로운 관계설정에 대하여
- 연 사 : 유시민 의원(열린우리당 경기도 당 위원장)

정부와 기업의 관계, 그리고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몇 가지 단상

2004.9.8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유시민

1. 시장과 경쟁은 국가가 설정한 질서의 틀 안에서만 존재하며 작동한다.
2. 모든 경제는 계획경제다. 대립하는 것은 계획경제와 시장경제가 아니라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와 분권적 계획경제이다.
3. 유효한 경쟁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좋은 성과를 가져온다.
4. 경쟁을 제약하고 파괴하는 힘은 시장 밖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시장 안에서도 출현한다.
5. 국가는 경쟁을 북돋우는 질서(구조)를 설정하고 유지하고 경쟁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
6. 국가는 시장내부에서 발생한 경제권력에 포획될 수 있다.
7. 국가권력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경쟁의 과정과 결과에 자의적으로 개입하려는 경향이 있다.
8. 사회의 생산력을 제약하는 것은 노동력, 자본 그리고 기술이라는 세가지 생산요소이다.
9. 기술에 대해서는 한계생산력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지 않으므로 현대 국가의 경제정책은 사회적 기술 수준 향상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10. 경쟁의 결과 출현한 분배상태가 사회 구성원 다수에 의해 정치적 심리적으로 승인 받지 못할 때 그 국민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어렵다.
11.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온건보수와 온건진보가 결합한 중도 자유주의 정당이다. 경제정책에서는 보수 자유주의 정책을 수용하며 사회문화 정책에서는 진보 자유주의 정책을 선호한다.
12. 참여정부는 사회정책적 목표를 위한 시장개입 정책과 관련하여 정책수단의 시장친화성을 중시한다.
13. 현재 불황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유가와 환율은 우리 정부의 통제밖에 있다. 대기업은 막대한 투자재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수익성 있는 새로운 성장산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 투자의 고용창출 효과는 크게 감소했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은 미성숙한 금융시장으로 인해 자금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규제로 인해 신규 설비투자의 제약을 당하고 있다.
14. 단기적으로는 적극적 거시조절정책을 통해 경기의 추가적인 악화를 방지하고 경기회복을 앞당겨야 한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규제철폐와 자금조달 원활화가 필요하다. 정부가 선정한 10대 신성장산업 육성과 산업 클러스터 건설 등에는 투자할 의지와 여력을 가진 대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15. 총체적으로 보면 정부와 대통령은 경제계와 국가 발전전략에 관해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하고, 경제계는 참여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근거 없고 부당한 정치적 편견을 접어야 한다.